

정답 및 해설

경찰직 2차 국어
(2015.5.30. 시행)

국 어

중앙경찰학원
이경복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②	①	②	④	①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①	③	③	①	④	①	③	②

총평

한자 문제 2문제가 표기 구별 문제와 독음을 달지 않은 한자성어가 출제되어 변별력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법 문제도 다의어 구별, 형태소 분석, 문장의 짜임, 훈민정음 제자원리가 난도가 있는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문학 출제 비중(7문항 출제)이 상당하며 출제 방식 또한 1지문에 3문제까지 출제되는 수능식의 세트형 출제가 시도되었다. 서울시 문제에만 나오는 평소 시험에 잘 다루지 않는 문학사를 다룬 문제 또한 눈 여겨 볼 부분이다. 앞으로 경찰직 대비 시험에서는 문학 부분에 대한 심층학습이 요구된다. 지난 경찰직 1차보다는 문제의 변별력을 지닌 것으로 보여 합격 점수는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문학 독해가 1문항도 출제되지 않은 점은 특이하다. 비문학독해 문제 비중의 초강세라는 일반행정직 시험과는 역행된다. 전 범위의 고른 출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문제 출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문항분석을 보면

- 1) 문법 - 10문항 (로마자표기법, 띄어쓰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형태소 분석, 음운의 개수, 훈민정음 제자원리, 한글맞춤법, 문장의 짜임, 적절한 단어의 선택, 우리말의 변천과정)
- 2) 문학 - 7문항 (임춘<공방전>, 김유정<봄봄>, 정지용<유리창>, 문학사)
- 3) 작문 - 1문항 (식사문의 작성 요령)
- 4) 한자 - 2문항 (표기 구별, 한자성어)
- 5) 비문학 독해, 화법 - 출제 되지 않음.

1. [정답] ④

황소는 순우리말이며 어원적으로 '한쇼<용비어천가(1447)>'이다. '큰 수소'를 뜻한다.

- ① 암(ㅁ)+개→암개 (ㅁ받침체언에 의해 합성되는 과정에서 축약되어 거센소리 표기된다.)
- ③ 성조(소리의 높낮이)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비분절적 음운이다.
- ④ '수라'와 '보라'는 몽골어에서 온 귀화어이다.

2. [정답] ②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대한 문제이다. 'ㄴ'에 가획의 원리를 더한 글자는 'ㄷ, ㅌ'이다. 'ㄷ'은 병서법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이다.

3. [정답] ③

‘~하다’로 붙을 수 있는 어근은 부사파생접미사 ‘-히’와 결합한다. 따라서 ‘분명하다’로 ‘분명히’로 적는다.

① ‘예삿일’은 사잇소리현상에 의해 ‘ㄴㄴ’음이 첨가되어 [예산닐]로 발음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② ‘개어’는 ‘개’로 줄여 쓸 수 있다. (한글맞춤법 34항)

④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오고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한글맞춤법 제21항-널따랗다, 팔따랗다, 알따랗다)

4. [정답] ②

해가 지는 장면이 무척 아름답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

① 어제 진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간접 인용 조사 ‘-고’)

② 영웅이 돌아올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

③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장 사퇴하겠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연결어미 ‘-면’)

④ 강희는 영호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만’, ‘을’은 모두 조사이다. 명사절은 안은 문장은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

5. [정답] ①

① 시민 단체는 일본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무정명사에 보조사 ‘-에’를 사용한 맞는 문장이다)

② 이제 비로소 대단원(大團圓)의 막을 올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대단원’은 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으로 고쳐야 한다.)

③ 세상에 대해 연구한 논문과 책으로만 보아도 수백 권에 이른다.

(‘연구한 논문과 읽은 책’으로 고쳐야 한다. ‘와/과’는 앞, 뒤가 문장성분과 서술어가 일치하는 대등구조이어야 한다)

④ 강 교수님, 이번에 정년을 하시면서 훈장이 추서(追叙)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추서’는 죽은 뒤에 훈장을 주거나 관등을 올리는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다. ‘수여’로 고친다)

6. [정답] ②

궁방전의 주제는 ‘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돈’이란 인간을 편리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돈이 지닌 부정적 해해를 지적한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이다.

7. [정답] ④

면직(免職) - 면할 면, 벼슬 직, 정계(政界) - 정사 정, 지경 계

8. [정답] ①

김유정의 <봄봄>이다. 지문에 제시된 결말 부분에서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도록 해”를 통해서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인물 간의 갈등과 결말 구성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①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9. [정답] ④

역순행적 구성의 사건을 재배열하는 문제이다. 지문에 제시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것은 <가>이다. 가장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것은 ‘맹세를 하며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가는’ <나>이다. 성례 문제를 둘러싼 해학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가>에 이어서 <다>-<라>-<마>의 순서로 이어진다.

10. [정답] ②

표현론적 관점에 관한 문제이다.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 사이의 관계를 감상하는 방법이다. ②는 작가 김유정에 관한 표현론적 관점이다.

① 반영론적 관점 ③ 내적 감상 ④ 효용론적 관점

11. [정답] ①

정지용의 <유리창>이다. 시적상황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다. 이와 같은 시적상황은 ① 김광균의 <운수저>이다.

② 구상<초토의 시>-전쟁의 폐허와 상처 ③ 박목월<하관>-아우를 잃은 슬픔 ④ 박남수<새>-자연 파괴 비판

12. [정답] ④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죽은 자식을 비유하는 시어는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물 먹은 별, 산새’이다. ‘유리를 닦는 것’은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시적화자의 행위이다.

13. [정답] ①

1960년대 문학사에 관한 문제이다. ①은 1930년대 문학사의 경향이다.

14. [정답] ③

경찰은 수사를 할 때 피해자나 피의자의 말만 듣고 쉽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내고자 하는 무편무당(無偏無黨)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③이 맞는 표현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함

옥석혼요(玉石混淆)-옥과 돌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뜻으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음

지동지서(指東指西)-동쪽을 가리켰다가 또 서쪽을 가리킨다는 뜻으로, 말하는 요지(要旨)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함

좌충우돌(左衝右突)-이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

명약관화(明若觀火)-불 보듯 뻔함, 분명함

선우후락(先憂後樂)-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김

부화뇌동(附和雷同)-일정한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함

시시비비(是是非非)-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함.

무편무당(無偏無黨)=불편부당(不偏不黨)-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고 공평을 유지함.

우유부단(優柔不斷)-딱 잘라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력이 부족함

인지상정(人之常情)-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15. [정답] ③

식사문은 정중하며 품위 있게 표현해야 하며, 상투적인 문구나 유행어 보다는 공식적인 상황과 어울리는 격식에 맞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

16. [정답] ①

깨고 날아갔다 - 음운의 개수는 총 13개이다. 음운은 자음과 모음의 개수이다. 첫소리의 ‘ㅇ’은 음운의 개수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된소리도 하나의 음운이다.

17. [정답] ④

형태소의 개수는 ‘떡+볶+이+들+팔+ㄹ+사람+은+어서+가+아’로 총 11개이다. ‘가’는 ‘가아’의 중음탈락된 형태이다. ‘팔’은 뒤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 ‘ㄹ’앞에서 ‘ㄹ탈락’된 형태이다. 형태소 분석할 때에는 원래의 형태로 밝혀서 형태소를 분석해야 한다. ‘어서’는 부사로 하나의 실질형태소이다.

18. [정답] ①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 문제이다. <보기> ‘약을 쓰면’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①이다. ‘생떼를 쓰다’에서의 ‘쓰다’는 ‘~를 사용하다(用)’라는 의미간의 연관성이 있는 다의어이다. 그런데, ② ‘묘를 쓰다’는 묘를 만들다(作)의 의미이고, ③ ‘소설을 쓰다’는 소설을 창작하다(書)의 의미이고 ④ ‘이불을 쓰다’의 의미는 이불을 덮다의 의미이다. 의미간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이다. ※ ‘생떼’는 ‘억지로 쓰는 떼’를 뜻하는 명사이다. 흔히 ‘생떼를 부리다’의 관용구로 사용하여 ‘고집을 피우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19. [정답] ③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인 경우의 ‘지’는 의존명사로 띄어쓰기 한다. ③의 ‘개최될지’는 시간의 경과가 아닌 어미 ‘ㄹ지’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① 부사 ‘같이’이므로 띄어 쓴다 ② 의존명사 ‘데’이므로 띄어 쓴다 ④ 조사 ‘만큼’이므로 붙여 쓴다.

20. [정답] ②

독립문의 로마자 표기는 [동님문] Dongnimmun이다.